+ 이재명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KOBA 2010, 미디어 문화를 창조하는 방송의 미래를 제시

내년 6월에 개최될 KOBA 2010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방송기술 발전과 방송문화 향상을 목표로 1991년부터 시작한 지 20회째 되는 뜻 깊은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성상 20년 동안 '국제 방송 · 음향 · 조명기기 전시회'는 규모와 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냈다. 초라하기 그지없던 국내 방송장비의 시장규모와 품목은 방송규모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성능, 다 품종으로 진보했고, 수많은 장비 공급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환경이 됐다.

KOBA는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수사항인 최고의 방송장비와 신기술을 제공하겠다는 합일된 신념 하나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시회 전문업체인 한국이앤엑스가 공동 주최해 왔다. 이제는 방송장비 전시회 분야에서는 미국의 NAB, 유럽의 IBC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규모가 대폭 확대된 컨퍼런스는 함축된 경험이 풍부하게 반영된 현장기술과 미래 방송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차세대 방송기술을 선도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방송기술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도 신제품 방송장비와 신기술이 우리나라 방송기술인들의 높은 안목과 기술 능력으로 확인하고 점검받는 중요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방송은 단방향 중심의 아날로그 시대였지만, 매체의 디지털화와 통신기술의 광대역화로 양방향 서비스가 주력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시회에서는 외국산 장비들이 주력으로 출품됐다. 일부 국산 방송장비들이 출시되기는 했지만, 성능이나 안정성, 신뢰성에서 현업 방송기술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금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품목들이 국산화 과제로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방송기술인들의 신뢰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인적, 물적 투자가 이뤄진다면 외국산 방송장비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소 이르긴 하지만 KOBA 2010에서는 외국산 장비와 국산화 된 방송장비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길 바란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KOBA 2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일찌감치 제시했다. 방송기술의 발전이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도 함께 바꾸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슬로건을 '미디어 문화를 창조하는 방송의 미래(Culture of Media & Future of Broadcasting)' 라고 정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의 세계에 살고 있고, 방송은 디지털, 3D 기술의 발달로 방송 그 이상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방송의 틀을 토대로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창조하는 방송기술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 KOBA 2010은 방송기술이 미디어 문화 창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생하게 보여 줄 것이다.

20주년을 맞이한 KOBA 컨퍼런스와 전시회는 형식과 내용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KOBA는 방송기술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담당자, 방송장비 관련 업체, 일반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기술을 일회성으로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비전 제시, 효과적 전파, 수요자와 공급자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방송장비 산업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 전임 회장단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미래 비전을 설계할 예정이고, 정책담당자와 장비공급 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KOBA 20주년 행사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합회 활동을 부탁드린다.